

社說

수사 의지·능력 없는 '이재명 방탄검찰'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본선 행보가 본계도에 올랐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이후 처음으로 24일 이날 연 전 대표와 만나 정권 재창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5일엔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는다. 이어 26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 27일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적인 여당 대선후보라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검찰의 '눈 감아 주기식' 수사 행태가 안겨주는 행보일 뿐이다. 요즘 '본분 몰각증'에 빠진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사정(司正)의 칼'을 자처하는 검찰이 스스로 비탄받을 행태를 자초하고 있다. 사악함을 깨뜨리고 올곧음, 곧 정의를 구현한다는 검찰의 '과사현정(敝邪顯正)' 정신의 본령을 망각한 것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뇌물 혐의만 넣고 배임 혐의는 빼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도지사와의 연관된 배임 혐의를 빼는 것은 이 후보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3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포함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멸이 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유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빼고, 특수수사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낸 핵심 혐의를 빼고 기소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애초 수사팀이 '대장동 설계자'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 '공직자의 배임' 혐의이고, 유 씨 구속영장에도 수선의원대 배임 혐의가 적시됐다. 유 씨가 2013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

시기발공사 전신)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만 적시해 기소한 것이다. 정작 화천대유 대주주 감내배 씨로부터 받은 5억원도 빼고

검찰이 유 씨의 주요 혐의를 공소장에서 누락시킨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범죄 혐의 소멸이 부족하다"며 김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유 씨의 범죄 혐의는 차고 넘친다. 유 씨는 성남도개공 사장직무대리 때 남육 변호사에게 "공사 설비를 도와주면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구획도 맘대로 하라"고 제한한 사실이 24일 밝혀

졌다. 든든한 '윗선' 없이는 할 수 없는 연행이다. 이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인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여당 대선후보로 불똥이 튀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유 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이 후보도 당연히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 후보를 무혐의 처리하려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이 점점 가까워 오는 상황에서 이 후보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이 후보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도 적잖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 방탄검찰'로서 수사 시능만 한다면 국민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을 것이다. 특별검사 도입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뒷받침하고 있다.

北한테 '오합지졸·종이고양이' 비아냥 받은 국군

세계 6위 군사력을 가진 국군의 위상이 문재인정부 들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것도 주적(主敵)인 북한으로부터 '오합지졸'·'종이고양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지경이 됐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신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도발이 아니라고 발언해 군부의 정치화가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1일 "남조선 군부의 취약성은 남조선 인민들의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저게 무슨 군대인가, 갈데없는 오합지졸무리이다. 군의 전투력은 종이호랑이도 못 되는 종이고양이에 불과하다고 개탄한다"고 주장했다.

부끄럽지만 일리 있는 지적이다. 메아리는 이어 올해 1~6월 한국군 내 사망사고

48건, 1~9월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5명, 최근 4년간 탈영 518건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통계를 제시했다. 또한 군대 내 인권센터가 접수한 신고 수는 26건이지만, 민간단체 군인권센터가 접수한 신고 수는 451건이라며 남한 군장병들의 군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최근 4년간 군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탈영 건수는 518건, 처벌 건수는 1만2975건에 달하고, 군체육부대에서는 사병들이 감독에게 뇌물을 찔러주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의 군 치부에 근거한 비난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

6·25 전쟁을 겪으며 성장한 한국군은 베트남전 참전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실전경험을 통해 세계 최강급으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다져진 연계 전술과 독립작전 수행 능력 등 여러 방면에서 강군의 면모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문 정부 들어와 군사복무 단축과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문 정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에서 제외하는 등 목표 없는 군대로 만들어버렸다. 국방백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부터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표현을 변경했다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주적 표현을 복원했다. 하지만 문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국군이 타격점을 잃은 군대가 된 것이다.

7월 청해부대 34진 장병 82%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난이 빗발치자 서욱 국방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8월엔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하자 유족과 국민께 사과했다. 그가 취임한 지난해 9월 이래 7번째

사과다. 서해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부터 동해안 경계 실패, 부실 급식 등 불미스러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사과를 거듭해 '사과장관'이란 별칭이 따라 다닌다.

이처럼 거듭되는 군 기강 사고에 일각에선 '영에 국군을 누가 당나라군대로 만들었는지'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SLBM을 시험발사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장거리 미사일과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망언을 하고, 서 장관은 "국민 피해가 없으니 도발이 아니고 위협이다"는 안이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실성 없는 대북 평화 타당으로 군기를 빼지게 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다. 더욱이 이런 와중에 북한의 재남침 야욕을 억제하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유엔사 존치 근거를 없애는 종전선언 추진은 이적행위에 다름없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대통령 선서를 잊었는가.

대선 정국 갈수록 혼탁... 당신의 선택은



성경&정치경제

안호원 칼럼니스트·목사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 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5:22-23>

이번 칼럼은 입장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몰매 맞을 각오를 하고 쓰고자 한다. 글을 쓰기에 앞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두둔하는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논쟁의 문제를 냉정하게 지적하고자 쓰는 것이라 점을 말해두고자 한다.

5개월 남지 남은 대선 정국이 대선이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더 혼탁해지고 있다. 역대 어느 선거판보다 지지분한 속대발이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고, 서로를 헐뜯고, 이에 대한 해명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역공을 하는 추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를 비롯하여 SNS, 유튜브, 인터넷상에서까지 '도'를 넘는 익명의 막말과 비방으로 도배질을 한다. 인격모독과 훼손, 인간성 상실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당 후보는 과거 '검사'를 사칭한 범법자이기도하고 불륜관계(도덕성),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말(윤리적)을 하고,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거센 논란이 일고, 야당의 유력한 후보는 처가를 둘러싼 의혹,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서 반러견에게 사과를 내미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것이 22일 밝혀지면서 '사과 회화화' 파문으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이 대선 가도에서 뜻밖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들이 어떻게 이를 돌파하는지가 대선 행보의 가능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아무래도 이번 20대 대선은 정치 협응증을 부르는 참 우울한 대선이 될 것만 같다. 이는 여야를 불문하고 딱히 마음을 준 후보가 없다보니 최악이 아닌 최악의 후보를 뽑는 대선이 되지 않을 까 심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손바닥에 '왕(王)'이라고 쓰인 한자 때문에 곤혹을 치르면서 연일 말실수로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등 비난의 화살이 수없이 쏟아져 수모를 당하는 처지가 됐다.

윤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맞다. 역대 정권 중 전두환 정권 시절 경제적으로 가장 좋았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그 당시 일부 '정적'들은 상당히 불편해했던 시절이었지만, 정작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도 풍요했고, 또 취업도 잘 되던 시절로 알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윤 후보의 말은 전두환 정권 당시 경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책임지도록 해서 실제로 그때 3차 현상의 여파가 있었지만 경제가 잘됐다는 말을 한 것이다. 경제 정책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한 것뿐이고, 자신도 그렇게 전문가를 기용 관리하며 밝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그럼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해운대 발언이 어찌 망언이고 석고대죄를 할 일인가. 그가 밝힌 입장문도 적절했다. 이걸 두고도 공격한다면 극성 친문이거나 민주당 지지자다. 전직 대통령의 '공과'는 역사와 국민이 판

단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지금 누구라도 말할 순 없다. 과거 여당 모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신' 합성 사진을 들고 국회의사당에 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적하자 그 뻔뻔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말하며 능구렁이처럼 웃었다. 여당의 여성의원까지 목인 동조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도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닌가. 누구에게든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문제를 삼을 만한 것도 아닌데, 무슨 큰 건수라도 잡은 듯 야당까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저희 당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은 특히 호남 관련 발언을 할 때 최대한의 고민을 해서 발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에 실망을 준 일이 있다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당 대표로서 이런 다른 의견들이 당의 기본 정책이나 핵심 가치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선을 긋겠다"고 덧붙였다. 그 말이 듣기 거북하다. 왜 호남을 특유화 지역으로 만들며 성역화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알 듯 말 듯하다. 홍준표 후보의 내부 총질, 유승민 후보가 윤 후보 손바닥에 낙서한 것을 미신맹종자로 밀어붙이는 등, 윤석열 죽이기 공작의 음모가 조금씩 그

하나 같이 표를 얻기 위한 행위로 비춰지면서 역겹기만 하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비를 바다에 갈아 밟고 지나가게 한 행태는 잘못된 처사다. 아무리 원흉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인격은 있는 법이고 명예도 있다. 법조계에서도 아무리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격을 존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짓밟으며 희희낙락 하는 모습은 참으로 추해 보인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곡되고 편견의 그릇된 역사는 당장 철거를 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정치공작이 성공하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때묻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을 국민이 높이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 후보들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부족해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족함이 신선함으로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앞서 몇 개의 윤석열 죽이기 공작도 이래서 실패한 거다. 지금 진행되는 '개 사과 공작'도, 앞으로 올 공작들도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아직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고



10월 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대권 주자들. 박민기 기자

최악이 아닌 '차악'을 골라야 하지만 국민은 현명 전직 대통령 평가에 대한 악의적 공작 성공 못해

실체를 드러낸다.

수법은 여론의 공작 전문가들이 자료를 흘리고 야당 의원이 가공해서 뉴스버스는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하여 특종으로 뿌리던 메이저 언론들은 이 인터넷 언론 기사를 가져와 윤석열의 음모라며 무차별적으로 보도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친 여론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을 조작하여 발표한다. 다시 어용방송과 언론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윤석열의 지지율이 폭락했다며 떠들고 대서특필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방송과 SNS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때를 맞춰 H씨나 Y씨니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로는 안되니 내가 적임자라며 공작의 배에 올라탄다.

가상을 하자면 이렇게 해서 경쟁력 없는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 드디어 공작은 성공하고 정권교체의 꿈은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것이다. 나중에 그 공작의 실체가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모든 방송과 언론은 새 대통령을 미화·찬양하는데 이미 국민의 기억은 그런 공작이 있었는지조차 모른다. 마치 오래된 옛날 얘기처럼 기억의 지평에서 가물거릴 뿐이다. 다시 국민은 양어지 같은 정권 아래서 붕어 가져 개 구리처럼 살아간다. 또 선거철만 되면 정치꾼들이 앞다투어 광주모역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그들에게 자신의 부모에게 찾아가 불효했던 것을 속죄한 적이 있었는가 묻고 싶다. 진실성이 보이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부모에게 속죄하지도 않으면서 5.18 광주모역에서는 무슨 잘못을 속죄하는 건지,

본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재형 후보 같은 분이 원자력폐기의 내막을 잘 알면서도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운운에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내부총질 하는 홍준표 후보를 도우면서 깨끗한 정치를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깨끗하고 밝은 별이 뜨기도 전에 혼탁한 정치에 휩쓸리는 것 같아 그 점이 아쉽다. 공자의 말 중 '유상지여하우불이(唯上知與下愚不移: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가 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유지만 하면 되니 더 변할 필요가 없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변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야당 후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옛말에도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애초에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 모쪼록 서로 묻고 뜯는 바닷게처럼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번 대선에서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인가. 답은 몰라도 진리는 있다. 본인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자신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해야 할 때는 변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당의 누가 대선후보가 되든 야당을 찍어야 한다.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국민은 슬프기만 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13>

※ 전문가 칼럼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